

## 팬데믹 이후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변화

2022. 11. 30

성인지데이터센터 조선미 부연구위원

-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변화를 팬데믹 시기 자녀돌봄 경험, 일상생활 및 삶의 변화,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2)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된 돌봄제공자가 평상시 '돌봄·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로 변화하였음.
- 3)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 초등연령대 자녀의 돌봄공백 문제가 두드러졌음.
- 4)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에 대한 어려움은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 5) 코로나19 시기 남녀근로자의 생활시간 활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 위축과 가사돌봄 시간의 증가를 더 크게 경험하였고, 특히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음.
- 6)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영향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부터 일과 여가 영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반면, 남성은 가족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7)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사용률이 높았음.
- 8)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덜 경험한 반면, 가사·돌봄 시간의 증가를 더 크게 경험하였음.
- 9) 재택근무를 사용했을 때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일반적 근무환경과 비교했을 때 재택근무가 더 생산적이라고 인식하였음.
- 10)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남녀에 관계없이 대체로 직무 만족도, 직업 몰입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11) 향후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는 곧 돌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다양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일·생활 균형의 다원화된 욕구가 성평등한 관계 속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돌봄지원체계의 다양성 증진 및 유연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

## I. 서론

팬데믹 위기는 여성의 일과 가정, 일상생활에 걸쳐 큰 충격을 야기하였음. 코로나19 시기 나타난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팬데믹 위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지만, 특히 여성근로자에게는 돌봄 위기와 고용 충격으로 인한 일·생활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자녀돌봄 부담이 급증하였고,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여성근로자의 일 자리 중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돌봄 경험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팬데믹 위기 기간에 나타난 돌봄공백이 여성근로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여성근로자 특성에 따른 돌봄 경험 및 일상생활 변화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었음. 유연근무제가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는 이견이 있으며, 유연근무 환경 도입이 여성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원격 근무환경이 확산되면서 유연근무제도가 사무직 중심 사업장에서 다수 도입된 바 있음. 팬데믹 기간 동안 유연근무 활용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유연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유연근무제 활용이 여성의 삶에 미친 효과에 대해 유연근무 개념이나 목적, 지향에 따라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음. 즉, 유연근무제 활용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증진시키면서 근로안정성에 기여하거나(이은아, 신경아, 2021 등)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의견(방진아, 허순임, 2021)과, 가사·돌봄노동 증가로 일·가정 이중부담을 증가시키고 업무생산성 저해 및 경력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손연정, 2022:49 등) 등이 대립되어 왔음.
- 여성근로자는 성역할 규범에 의해 일·가정 양립의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연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쉬움. 때문에 유연근무 환경 확산은 주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나 혹은 여성의 삶에서 일-생활 영역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이 여성근로자의 일과 돌봄,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검토하고자 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2020년) 자료로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돌봄 경험 및 일상생활 변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살펴봄.

- 팬데믹 위기는 여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음에도 구체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음. 팬데믹 발발 후 2년 여가 지나면서 동시기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양적 자료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정책지형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의 본 조사 및 부가조사(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 자료로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삶 변화를 살펴보았음. 동 자료는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자녀돌봄 경험, 생활시간 변화 및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문항을 제공하여 팬데믹 이후 변화된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경험을 분석하는데 장점이 있음.
  -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변화된 삶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8차 조사(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등이 있음.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이 일부 문항에 제한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8차 조사(2020년)」는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삶 변화를 포함해 여성의 일·가족 경험 관련 가장 포괄적인 자료이나 남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남녀근로자를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는 코로나19 관련 부가조사 문항에서 남녀근로자의 돌봄 경험 및 일상생활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고, 특히 유연근무제의 활용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유연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변화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자료임.
- 본 연구는 남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생활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팬데믹 시기 여성근로자의 자녀돌봄 경험, 일상생활 및 삶의 변화, 3)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돌봄공백 시기 여성근로자가 경험한 일과 돌봄의 특성을 토대로, 팬데믹 위기로 드러난 여성근로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오늘날 다원화·유연화된 일·생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개선을 제언하고자 함.
  - 분석내용으로 1)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돌봄 경험, 2)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일상생활 변화(생활시간 변화, 삶의 영향), 3)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유연근무제 활용 시 생활시간 변화 및 삶의 영향, 유연근무제 생산성 인식 등)을 살펴보았음.
  - 여성근로자의 집단별 차이에 주목하여, 가구유형(미혼+무자녀 가구, 기혼유배우+무자녀 가구, 기혼유배우+유자녀 가구), 자녀연령(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종사상 지위(전일제, 시간제)별 일·생활 변화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 II.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자녀돌봄 경험

### 1. 코로나19와 자녀돌봄 변화

코로나19 이후 주된 돌봄제공자가 '돌봄·교육시설'에서 '여성근로자'로 변화함.

- 코로나19 이후 남녀근로자 자녀의 주된 돌봄제공자가 '돌봄·교육시설'에서 '여성근로자'로 이동하였음. 즉, 여성근로자는 '본인'이,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에 의한 돌봄 제공이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이전(평상시)은 남녀 모두 자녀의 주된 돌봄자가 '돌봄·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학교, 방과후 교실, 가정위탁 시설 등)'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여성 45.32%, 남성 43.74%),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본인(32.20%)'으로, 남성은 '배우자(54.59%)'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 이후 '부모님'에 의한 돌봄 제공 또한 상당 수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전후 비교 시 미취학 자녀는 10.80%→22.49%, 초등학교 자녀는 6.83%→15.82%로 증가하였음.

〈표 1〉 평상시 자녀의 주된 돌봄자

(단위: %, 명)

평상시 주된 돌봄자	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본인	25.86	2.40	23.53	4.65	21.06	8.33	23.65	4.55
배우자	2.59	42.46	2.32	33.20	1.68	21.66	2.23	34.47
부모님	10.80	5.05	6.83	4.48	3.43	2.07	7.27	4.15
자녀 혼자 있음	2.31	1.30	21.78	12.96	38.67	28.35	19.66	11.57
부모, 유모, 가정부	0.94	0.28	0.64	0.31	0.00	1.13	0.56	0.49
돌봄·교육시설	55.45	47.81	44.34	43.28	33.92	36.96	45.32	43.74
기타	2.06	0.68	0.55	1.12	1.25	1.51	1.31	1.02
전체 (사례 수)	100.00 (377)	100.00 (837)	100.00 (392)	100.00 (662)	100.00 (358)	100.00 (478)	100.00 (1,127)	100.00 (1,97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돌봄·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학교, 방과후 교실, 가정위탁 시설  
 2) 기타: 나이가 더 많은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친척, 친구/지인·이웃, 기타  
 3)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음영표시=20% 이상

〈표 2〉 코로나19 당시 자녀의 주된 돌봄자

(단위: %, 명)

코로나19 당시 주된 돌봄자	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본인	39.85	4.57	30.46	5.72	24.77	8.87	32.20	5.97
배우자	4.98	69.59	3.70	51.15	2.93	32.00	3.94	54.59
부모님	22.49	10.50	15.82	8.39	5.24	3.30	15.13	8.09
자녀 혼자 있음	3.89	1.37	32.81	18.48	55.23	43.33	28.88	16.98
부모, 유모, 가정부	1.60	0.74	0.96	0.31	0.00	1.13	0.91	0.69
돌봄·교육시설	23.24	11.69	13.10	13.71	9.74	7.09	15.80	11.26
기타	3.96	1.54	3.15	2.23	2.09	4.29	3.13	2.42
전체 (사례 수)	100.00 (377)	100.00 (837)	100.00 (392)	100.00 (662)	100.00 (358)	100.00 (478)	100.00 (1,127)	100.00 (1,97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돌봄·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학교, 방과후 교실, 가정위탁 시설  
 2) 기타: 나이가 더 많은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친척, 친구/지인·이웃, 기타  
 3)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음영표시=20% 이상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평상시 21.78%→코로나19 당시 32.91%) 초등연령 시기의 돌봄공백 문제가 두드러졌음.

- 코로나19 시기에는 자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자녀의 돌봄공백 문제가 나타났음.
  - 여성근로자 자녀의 주된 돌봄제공자는 코로나19 이전 시기 미취학 자녀는 '돌봄·교육시설(55.45%)', 초등학생 자녀는 '돌봄·교육시설(44.34%)', 중고등학생 자녀는 '자녀 혼자 있음(38.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미취학 자녀는 '본인(평상시 25.86%→코로나19 시기 39.85%)', 초등학생 자녀는 '자녀 혼자 있음(평상시 21.78%→코로나19 시기 32.91%)', 중고등학생 자녀는 '자녀 혼자 있음(평상시 38.67%→코로나19 시기 55.2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초등학생 시기는 자녀발달을 위한 교육적 충족과 돌봄 제공의 병행을 필요로 하면서(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의 요구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함(구슬이, 정익중, 2021; 이성희 외,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초등자녀에 대한 교육·돌봄의 이중부담 증가는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됨.
  - 돌봄수혜자 측면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코로나19 이후 혼자 있는 비율이 급증(여성 21.78%→32.81%, 남성 12.96%→18.48%)하면서 동 연령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가 두드러졌음.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이른바 '라면형제' 사건)<sup>1)</sup>은 한부모·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 관련 초등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잘 보여줌. 초등돌봄 관련 정책으로 초등돌봄 교실(저학년 대상 돌봄 지원)이나 방과후학교(고학년 대상 교육돌봄 지원), 온종일 돌봄(학교-지자체 연계·협력 기반 돌봄 지원)<sup>2)</sup>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통합적 교육·돌봄 제공에 질적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 돌봄공백과 관련된 위기 관리를 위해 초등돌봄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 코로나19와 자녀돌봄 어려움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 수준은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에 대한 어려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여성근로자는 총점 3.11점으로 남성근로자의 3.00점보다 높았음.
    -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를 집에서 돌보거나(여성 3.26점, 남성 3.13점), 자녀의 학업을 유지하는 것(여성 3.34점, 남성 3.19점), 돌볼 사람이나 기관을 찾는 데(여성 2.86점, 2.80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자녀들이 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데 더 우려하고(여성 3.28점, 남성 3.14점) 있었음.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 
-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돌봄제공자(어머니)의 방입으로 자택에 혼자 있던 도중 화재사고 발생으로 형이 중상으로 입고 동생이 사망한 사건임.  
출처: 노컷뉴스. 2020.09.17. '급식 대신 라면 끓이다 참변' 인천 초등생 형제...사흘째 중태. 주영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413969> (2022.11.28. 접속).
  - 2) 출처: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정책소개.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do> (2022.11.28. 접속).

더 낮았음(여성 3.20점, 남성이 3.24점).

○ 자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 인식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총점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 어려움 수준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3.96점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남성근로자 역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때 3.11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이 미취학 자녀(여성 3.09, 남성 3.00점), 중고등학생 자녀(여성 2.95점, 남성 2.88점)의 순서로 나타남.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 돌봄서비스 중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특히 초등자녀 돌봄 상황에서 가장 양육자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 유형은 '자녀의 학업 유지에 대한 어려움(3.59점)'과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것(3.55점)'으로 나타나, 주로 아동의 교육적 개입에 대한 부담감 때문임이 확인되었음.

〈표 3〉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 어려움 수준

(단위: 평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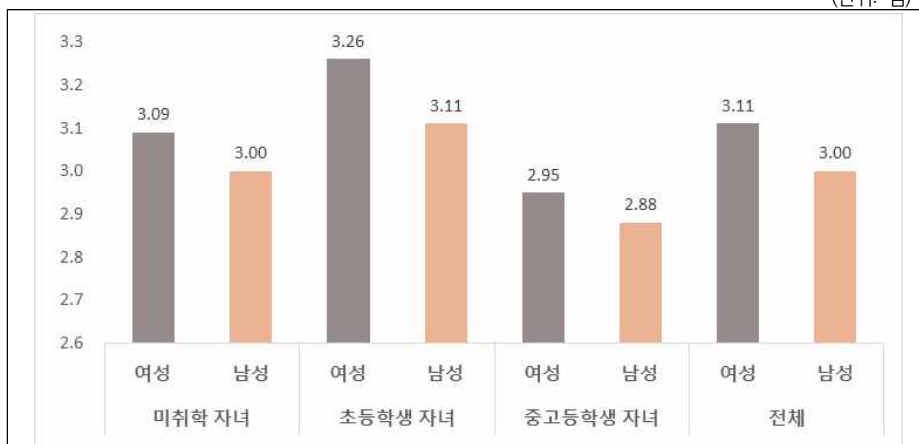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 어려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매우 번잡하다	3.41	3.29	3.47	3.22	2.83	2.74	3.26	3.13
(2)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3.01	2.98	3.55	3.35	3.30	3.14	3.28	3.14
(3) 이번 사태로 자녀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26	3.35	3.34	3.28	2.96	2.98	3.20	3.24
(4) 자녀가 집에서 학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다	3.26	3.13	3.59	3.38	3.13	3.03	3.34	3.19
(5) 돌봄 사람이나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3.01	2.94	3.02	2.85	2.47	2.46	2.86	2.80
총점 (사례 수)	3.09 (382)	3.00 (841)	3.26 (409)	3.11 (679)	2.95 (371)	2.88 (497)	3.11 (1,162)	3.00 (2,01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총점 = (3) 역코딩 및 (1)~(5) 합산평균

2)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점)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그림 1〉 코로나19 당시 자녀돌봄 어려움 수준(총점)



### Ⅲ.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의 일상생활 변화

#### 1. 코로나19 시기 생활시간 활용 변화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 위축 및 가사돌봄 시간 증가를 더 크게 인지하였고, 특히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함.

○ 코로나19로 인한 남녀근로자의 시간활용 변화를 취업활동, 가사 및 돌봄노동, 여가생활(사교 모임 활동, 운동/스포츠,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각 정의는 하단 박스 참고). 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시간활용이 증가된 상황, 그 이하는 시간활용이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유형(미혼+무자녀, 기혼유배우+무자녀, 기혼유배우+유자녀<sup>3)</sup>), 자녀연령(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sup>4)</sup>), 종사상 지위(전일제, 시간제)의 집단별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시간 활용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여성근로자는 전반적으로 취업활동과 사교모임 활동에서 남성근로자보다 더 위축된 반면,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참고) 노동패널 23차년도 부가조사 문항은 시간사용의 절대적 변화량이 아닌 상대적인 변화 수준으로 해석해야 함. 예를 들어, 여성의 취업활동 변화가 4.64점으로 남성의 4.71점보다 낮았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활동 시간이 남성보다 실제 짧아진 것이 아닌 위축을 더 크게 인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함.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은 4.64점으로 남성의 4.71점보다 더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인지하였고, 가사활동은 여성이 5.40점으로 남성의 5.17점보다 시간이 늘어났다고 더 크게 인식하는 평이었음, 돌봄노동 또한 여성 5.28점으로 남성의 5.21점보다 높았음.
- 여가활동 경우, 사교모임 활동에서 여성은 2.95점으로 남성의 3.01점보다 더 위축을 크게 인식한 반면, 운동/스포츠에서는 남성이 4.20점으로 여성 4.30점보다 더 크게 위축을 경험하였음.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남녀 모두 코로나19 이후 늘어났으며 여성 5.50점, 남성 5.48점으로 나타남.

〈표 4〉 분석자료 시간활용 유형 정의

- **취업활동:** 취업자의 근로활동, 통근/통학 시간 등 일과 관련된 활동 전반 포함
- **가사노동:** 식사준비, 세탁, 정소, 시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
- **돌봄노동:** 자녀 씻기기, 재우기, 놀아주기,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공부시키기
- **운동/스포츠:** 등산, 수영, 골프,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등
- **사교모임 활동:**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부가조사(2020년) 설문지.

3) 가구유형은 혼인상태(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및 고등학교 이하 자녀 여부를 결합하여 범주화하였음.

4)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표 5〉 성별 및 집단별 취업활동 변화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4.64 (3,889)	4.72 (823)	4.65 (1,336)	4.65 (1,098)	4.66 (383)	4.61 (410)	4.61 (374)	4.72 (2,903)	4.32 (956)
남성 (사례 수)	4.71 (5,078)	4.69 (1,074)	4.64 (1,703)	4.83 (1,992)	4.82 (850)	4.83 (684)	4.81 (503)	4.74 (4,747)	4.05 (298)
전체 (사례 수)	4.68 (8,967)	4.70 (1,897)	4.64 (3,039)	4.76 (3,090)	4.77 (1,233)	4.75 (1,094)	4.73 (877)	4.73 (7,650)	4.26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유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 취업활동 시간에서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의 위축이 나타난 가운데,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양육 중일 때 남성보다 위축을 더 크게 경험하였음. 종사상 지위에서는 시간제 남성이 시간제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위축을 경험하였음.

- 취업활동 시간은 자녀가 있는 기혼유배우 집단에서 여성(4.65점)이 남성(4.83점)보다 경제활동 위축을 더 크게 경험하였으며, 자녀연령별로는 여성이 초등학생(여성 4.61점, 남성 4.83점) 및 중고등학생 자녀(여성 4.61점, 남성 4.81점)를 두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위축을 경험함.
- 종사상 지위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경제활동 위축을 크게 인지하는 가운데, 남성 시간제 근로자(4.05점)가 가장 큰 위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은 남녀 모두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대체로 자녀가 있는 기혼유배우 가구 여성,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증가를 더 높게 인지하는 편이었음. 반면 종사상 지위는 전일제 여성과 시간제 여성 사이의 큰 차이가 없었음.

- 가사노동 시간은 가구유형별로는 자녀가 있는 기혼유배우 여성이 6.12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자녀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이 6.33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 시간제 여성은 5.39점으로 전일제 여성(5.4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 돌봄노동 시간은 가구유형별로는 자녀가 있는 기혼유배우 여성이 6.05점, 자녀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6.37점으로 전체 집단 중에 가장 높았고, 시간제 여성은 5.30점으로 전일제 여성(5.28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한편, 돌봄노동시간에서 미혼가구(여성 4.96점, 남성 4.97점)와 자녀가 없는 유배우가구(여성 5.00점, 남성 4.98점)는 남녀와 관계없이 돌봄노동 시간에서 약간 위축이 나타나거나 돌봄 부담의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 이는 가사노동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혼가구(여성 5.03, 남성 4.98)와 자녀가 없는 유배우가구(여성 5.22, 남성 5.0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와 비교할 때 남녀 격차가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즉, 자녀가 없는 가구는 성별 및 기혼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돌봄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성별 및 집단별 가사노동 변화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5.40 (3,889)	5.03 (823)	5.22 (1,336)	6.12 (1,098)	6.16 (383)	6.33 (410)	5.80 (374)	5.40 (2,903)	5.39 (956)
남성 (사례 수)	5.17 (5,078)	4.98 (1,074)	5.01 (1,703)	5.46 (1,992)	5.65 (850)	5.42 (684)	5.19 (503)	5.18 (4,747)	4.92 (298)
전체 (사례 수)	5.26 (8,967)	5.00 (1,897)	5.10 (3,039)	5.69 (3,090)	5.81 (1,233)	5.75 (1,094)	5.43 (877)	5.26 (7,650)	5.28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표 7〉 성별 및 집단별 돌봄노동 변화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5.28 (3,889)	4.96 (823)	5.00 (1,336)	6.05 (1,098)	6.37 (383)	6.28 (410)	5.35 (374)	5.28 (2,903)	5.30 (956)
남성 (사례 수)	5.21 (5,078)	4.97 (1,074)	4.98 (1,703)	5.61 (1,992)	5.87 (850)	5.60 (684)	5.17 (503)	5.23 (4,747)	4.95 (298)
전체 (사례 수)	5.24 (8,967)	4.96 (1,897)	4.99 (3,039)	5.76 (3,090)	6.03 (1,233)	5.85 (1,094)	5.24 (877)	5.24 (7,650)	5.22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 여가활동 변화는 전반적으로 사교모임 활동 및 운동/스포츠는 위축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은 증가한 가운데,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및 집단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음.

- 사교활동 모임은 각 유형별로 자녀가 있는 유배우 여성(2.83) 및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2.79), 전일제 여성(2.93)이 다른 집단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시간 위축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운동/스포츠는 주로 남성들의 활동 위축이 두드러진 가운데, (자녀여부와 무관한) 기혼남성(4.17), 초등학생을 둔 남성(4.13), 전일제 남성(4.19)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점수가 낮았음. 디지털 기기는 남녀 모두 코로나19 이후 사용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미혼여성(5.64)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5.66)이 가장 장시간 사용하였음.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은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이 5.66점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돌봄시설이 폐쇄되고 비대면 강의를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개입과 관리의 역할이 강화된 상황으로 추측됨.

〈표 8〉 성별 및 집단별 사고모임 활동 변화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2.95 (3,889)	2.93 (823)	2.98 (1,336)	2.83 (1,098)	2.79 (383)	2.91 (410)	2.90 (374)	2.93 (2,903)	3.00 (956)
남성 (사례 수)	3.01 (5,078)	3.14 (1,074)	2.98 (1,703)	2.93 (1,992)	2.80 (850)	2.91 (684)	3.15 (503)	3.00 (4,747)	3.07 (298)
전체 (사례 수)	2.98 (8,967)	3.05 (1,897)	2.98 (3,039)	2.90 (3,090)	2.80 (1,233)	2.91 (1,094)	3.05 (877)	2.98 (7,650)	3.02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표 9〉 성별 및 집단별 운동/스포츠 활동 변화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4.30 (3,889)	4.28 (823)	4.26 (1,336)	4.32 (1,098)	4.46 (383)	4.33 (410)	4.17 (374)	4.28 (2,903)	4.35 (956)
남성 (사례 수)	4.20 (5,078)	4.24 (1,074)	4.17 (1,703)	4.17 (1,992)	4.17 (850)	4.13 (684)	4.25 (503)	4.19 (4,747)	4.29 (298)
전체 (사례 수)	4.24 (8,967)	4.26 (1,897)	4.21 (3,039)	4.22 (3,090)	4.26 (1,233)	4.20 (1,094)	4.21 (877)	4.22 (7,650)	4.33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표 10〉 성별 및 집단별 디지털 기기 사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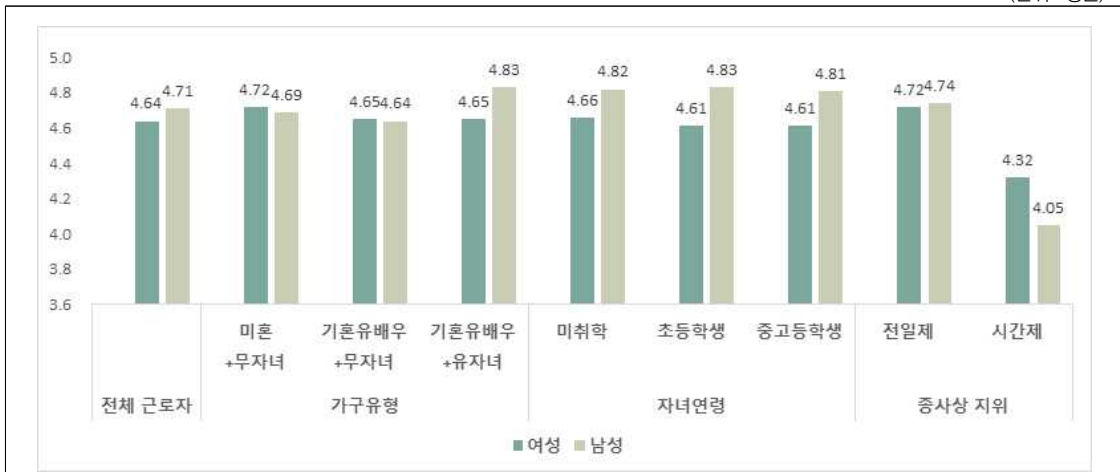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5.50 (3,889)	5.64 (823)	5.39 (1,336)	5.52 (1,098)	5.42 (383)	5.66 (410)	5.48 (374)	5.49 (2,903)	5.54 (956)
남성 (사례 수)	5.48 (5,078)	5.52 (1,074)	5.38 (1,703)	5.51 (1,992)	5.54 (850)	5.49 (684)	5.50 (503)	5.47 (4,747)	5.60 (298)
전체 (사례 수)	5.49 (8,967)	5.57 (1,897)	5.39 (3,039)	5.51 (3,090)	5.50 (1,233)	5.55 (1,094)	5.49 (877)	5.48 (7,650)	5.55 (1,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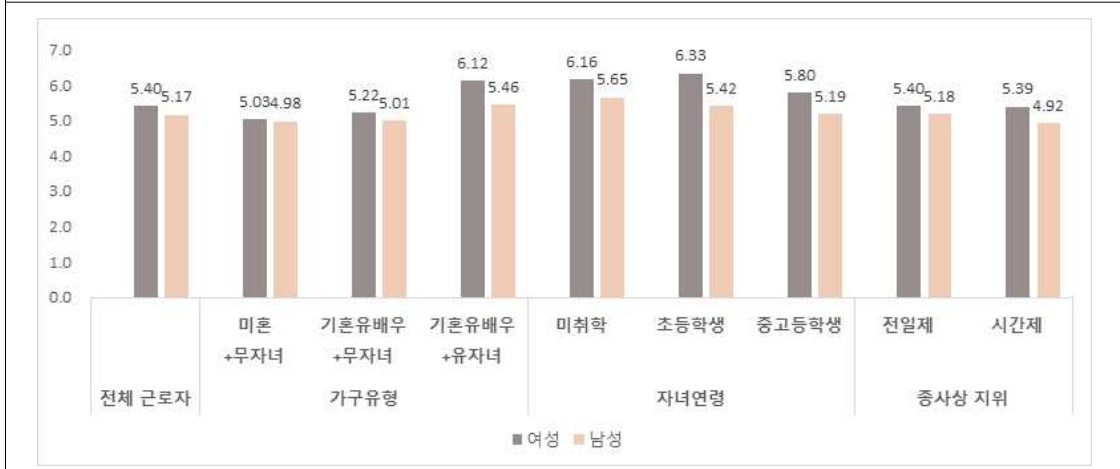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평균)



[그림 1] 성별 및 집단별 취업활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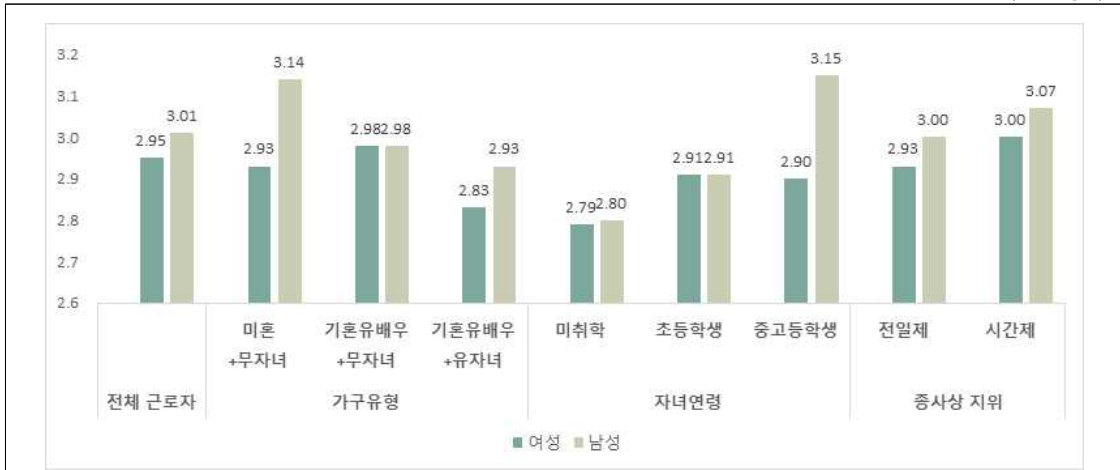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및 집단별 가사노동 변화



[그림 3] 성별 및 집단별 돌봄노동 변화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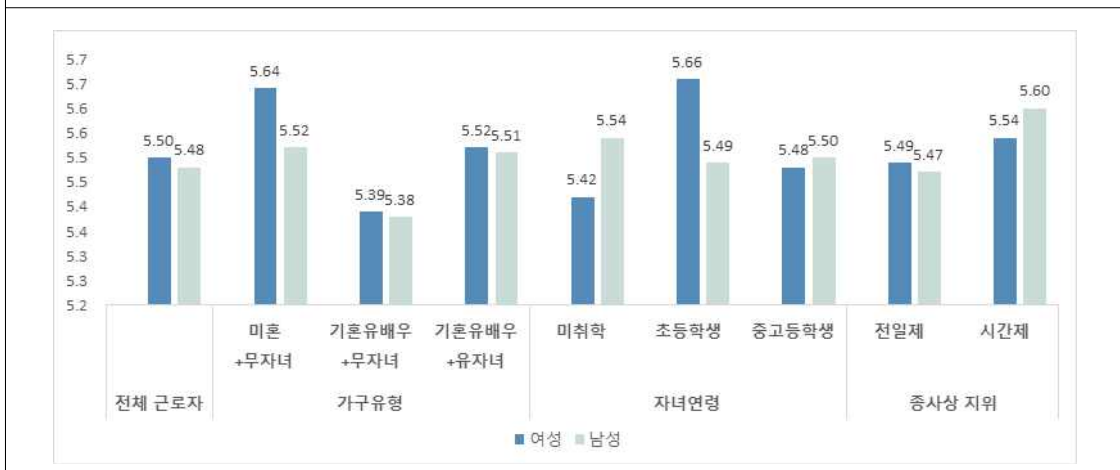
(단위: 평균)



[그림 4] 성별 및 집단별 사교모임 활동 변화



[그림 5] 성별 및 집단별 운동/스포츠 변화



[그림 6] 성별 및 집단별 디지털 기기 사용 변화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2.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여성은 일과 여가에서, 남성은 가족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가 남녀근로자의 일(채용·구직·창업 등), 가족 관계,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음. 10점에 가까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상황, 0점에 가까울수록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일과 여가의 영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가족 관계의 영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삶에 미친 영향은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남녀 모두 여가(여성 5.72점, 남성 5.68점), 가족관계(여성 4.87점, 남성 4.92점), 채용·구직·창업(여성 3.35점, 남성 3.32점)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 남녀 차이를 비교할 경우,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일과 여가생활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고, 남성은 가족관계에서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근로자는 코로나19가 일, 가족관계,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에서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집단 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즉, 전체 집단 중 시간제 근로 중인 남녀근로자는 일(채용·구직·창업 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자녀를 양육 중인 유배우 가구, 이 가운데 특히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남녀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및 여가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
  - 시간제 근로 중인 남녀근로자는 일(채용·구직·창업 등) 영역에서 여성 3.66점, 남성 3.99점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별 유형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대체로 크게 받은 편이었음. 특히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영향이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음.
  -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는 가족관계 영역에서 여성 5.20점, 남성 5.16점, 여가생활에서 여성 6.01점, 남성 5.94점으로, 집단별 유형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았음, 특히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이 가족관계 및 여가생활에 받은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여성근로자는 일(채용·구직·창업 등)과 관련하여 미혼일 때(3.51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때(3.70점), 시간제 근로 중일 때(3.66점) 타 집단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음.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유배우 상태일 때(5.05점),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일 때(5.20점), 전일제 근로 중일 때(4.92점) 다른 집단보다 더 영향이 컸음. 여가생활에서는 자녀 양육 중인 기혼유배우 가구일 때(5.93점), 미취학 자녀를 두었을 때(6.01점), 전일제 근로 중일 때(5.82점) 다른 유형보다 더 큰 영향이 나타남.
  - 남성근로자는 일(채용·구직·창업 등)과 관련 자녀가 없는 기혼유배우 가구일 때(3.47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때(3.30점), 시간제 근로 중일 때(3.99점) 타 비교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음. 가족관계 경우 자녀를 양육 중인 기혼유배우 가구일 때(5.08점),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일 때(5.17점), 전일제 근로일 때(4.94점) 영향을 더 크게 나타남. 여가생활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유배우 가구일 때(5.83점),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일 때(5.94점), 전일제 근로 중일 때(5.69점) 다른 유형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음.

〈표 11〉 성별 및 집단별 채용·구직·창업 등 영향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3.35 (3,889)	3.51 (823)	3.19 (1,336)	3.29 (1,098)	3.17 (383)	3.21 (410)	3.70 (374)	3.26 (2,903)	3.66 (956)
남성 (사례 수)	3.32 (5,077)	3.35 (1,074)	3.47 (1,703)	3.12 (1,991)	2.96 (849)	3.21 (684)	3.30 (503)	3.27 (4,746)	3.99 (298)
전체 (사례 수)	3.33 (8,966)	3.42 (1,897)	3.35 (3,039)	3.18 (3,089)	3.03 (1,232)	3.21 (1,094)	3.46 (877)	3.27 (7,649)	3.74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0점) ~ 매우 영향을 받았다(10점)
-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표 12〉 성별 및 집단별 가족관계 영향

(단위: 평균, 명)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4.87 (3,889)	4.90 (823)	4.77 (1,336)	5.05 (1,098)	5.20 (383)	5.14 (410)	4.77 (374)	4.92 (2,903)	4.72 (956)
남성 (사례 수)	4.92 (5,077)	4.69 (1,074)	4.96 (1,703)	5.08 (1,991)	5.16 (849)	5.17 (684)	4.78 (503)	4.94 (4,746)	4.61 (298)
전체 (사례 수)	4.90 (8,966)	4.78 (1,897)	4.88 (3,039)	5.07 (3,089)	5.17 (1,232)	5.16 (1,094)	4.78 (877)	4.93 (7,649)	4.69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0점) ~ 매우 영향을 받았다(10점)
-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표 13〉 성별 및 집단별 여가 영향

(단위: 평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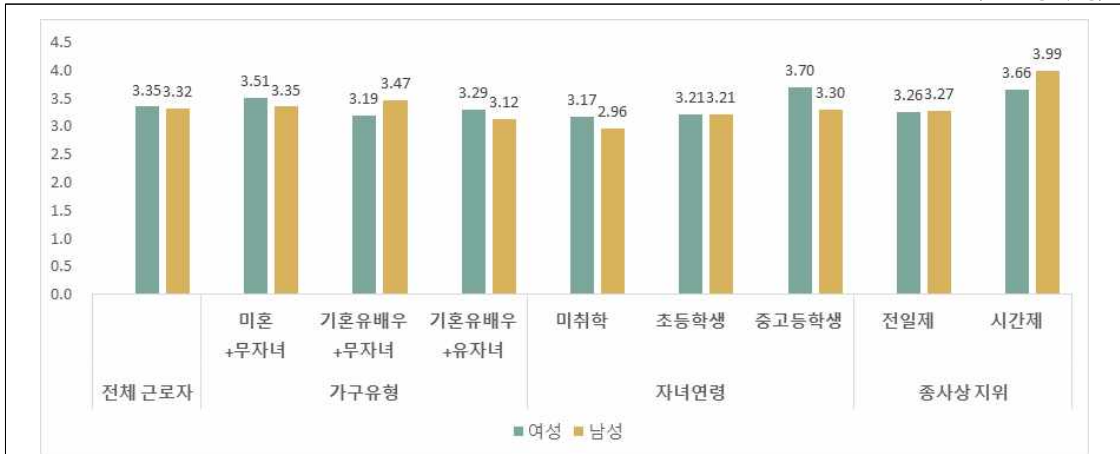
성별	전체 근로자	가구유형			자녀연령			종사상 지위	
		미혼 +무자녀	기혼유배우 +무자녀	기혼유배우 +유자녀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전일제	시간제
여성 (사례 수)	5.72 (3,889)	5.92 (823)	5.55 (1,336)	5.93 (1,098)	6.01 (383)	5.84 (410)	5.84 (374)	5.82 (2,903)	5.40 (956)
남성 (사례 수)	5.68 (5,077)	5.57 (1,074)	5.63 (1,703)	5.83 (1,991)	5.94 (849)	5.81 (684)	5.61 (503)	5.69 (4,746)	5.46 (298)
전체 (사례 수)	5.70 (8,966)	5.72 (1,897)	5.60 (3,039)	5.86 (3,089)	5.96 (1,232)	5.82 (1,094)	5.70 (877)	5.74 (7,649)	5.41 (1,25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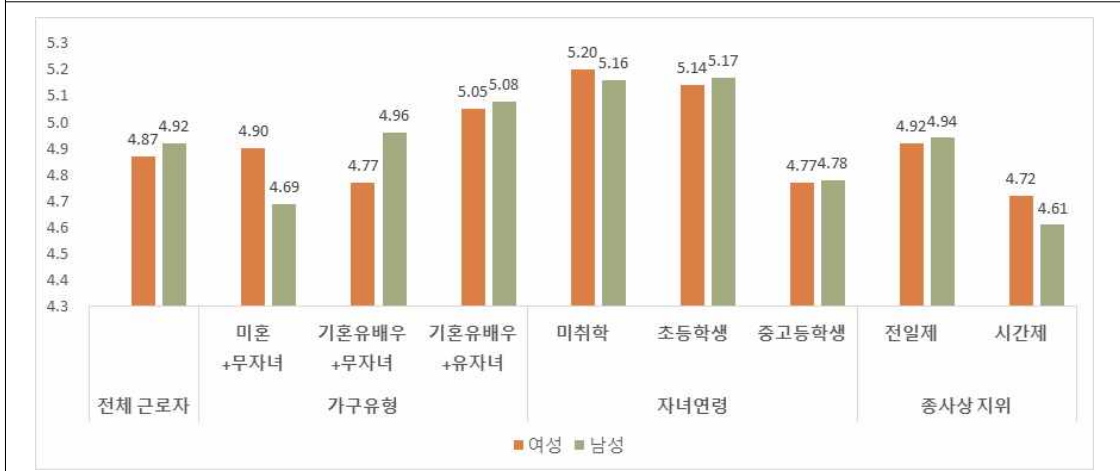
- 주: 1)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0점) ~ 매우 영향을 받았다(10점)
- 2) 가구유형 = 고등학생 이하 자녀 한정; 미혼+유자녀, 기혼무배우+유자녀, 기혼무배우+무자녀는 분석 제외
- 3) 자녀연령 = 유자녀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 4)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평균, 명)



[그림 7] 성별 및 집단별 채용·구직·창업 등 영향



[그림 8] 성별 및 집단별 가족관계 영향



[그림 9] 성별 및 집단별 여가 영향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IV.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활용과 여성의 삶

### 1.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2020년 3월 기준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가 새로 도입된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4%에 그쳤음.

-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음.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코로나19 시기에 직장 내 도입 여부와 사용 경험을 묻고 있음.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2020년 3월 당시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첫째 일자리) 기준으로 살펴봄.
- 여성근로자 중 5.55%, 남성근로자 중 5.50%가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이 도입된 경우는 여성이 4.09%, 남성이 3.56%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초기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었던 분위기 속에도, 전체 근로자 중 약 4% 정도만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경험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용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음.

〈표 14〉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2020년 3월 기준)

(단위: %, 명)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여성	남성	전체
직장에서 새로이 도입되었다	4.09	3.56	3.78
아니오, 직장에 원래 있었다	1.46	1.94	1.74
아니오, 변화가 없었다	94.45*	94.50	94.48
합계(사례 수)	100.00(3,654)	100.00(4,866)	100.00(8,52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2) \*각 범주별 반올림 적용으로 인해 94.46에서 94.45로 보정함

(단위: 평균, 명)



[그림 10]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2020년 3월 기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더 사용률이 높았음.

-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약 과반수 이상(59.80%)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sup>5)</sup>.
  -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를 포함하며(아래 정의 참고),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사용 경험율을 살펴보았음<sup>6)</sup>.
  - 유연근무제가 원래 있었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롭게 도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 중 약 과반수 이상인 59.8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재택근무제 사용률이 47.60%로 가장 높았고, 시차출퇴근제는 15.80%, 선택근무제는 3.56%, 원격근무제는 5.73%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이 나타났음.

〈표 15〉 분석자료 유연근무제 정의

※ **유연근무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의미하며, 아래 다섯 가지 유형의 제도 중 한 가지라도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 외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부가조사(2020년) 설문지.

〈표 16〉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사용률

(단위: %, 명)

유형	사용	미사용	전체
유연근무제(사례 수)	59.80(239)	40.20(182)	100.00(421)
재택근무제(사례 수)	47.60(188)	52.40(233)	100.00(421)
시차출퇴근제(사례 수)	15.80(56)	84.20(365)	100.00(421)
선택근무제(사례 수)	3.56(19)	96.44(402)	100.00(421)
원격근무제(사례 수)	5.73(20)	94.27(401)	100.00(421)
기타(사례 수)	0.62(5)	99.38(416)	100.00(42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2)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 5) 후술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시간 변화 및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해석의 참조를 위해, 유연근무제 사용이 미혼 무자녀 가구 등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음.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 중 미취학 또는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응답자(원자료 기준)는 여성 118명 중 55명, 남성 121명 중 55명으로 대체로 자녀 여부의 분포가 비슷하였음. 또한 기혼유배우인 응답자는 여성 71명, 남성 94명으로 대부분 기혼 상태였음. 단,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참고치로 제시하며 결과표는 별도 수록하지 않음.
- 6) 재택근무제를 제외한 타 유형은 사례 수가 작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사용 경험(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과 '재택근무제 사용 경험'에 한해 분석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좀 더 유연근무제의 사용률이 높았음. 이는 여성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대응 및 일·가정 양립 해소 방안으로 유연근무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유연근무제 사용률은 여성이 66.18%로 남성근로자의 55.31%보다 더 높았으며, 이 가운데 재택근무제의 사용 경험률 역시 여성 51.86%, 남성 44.62%로 여성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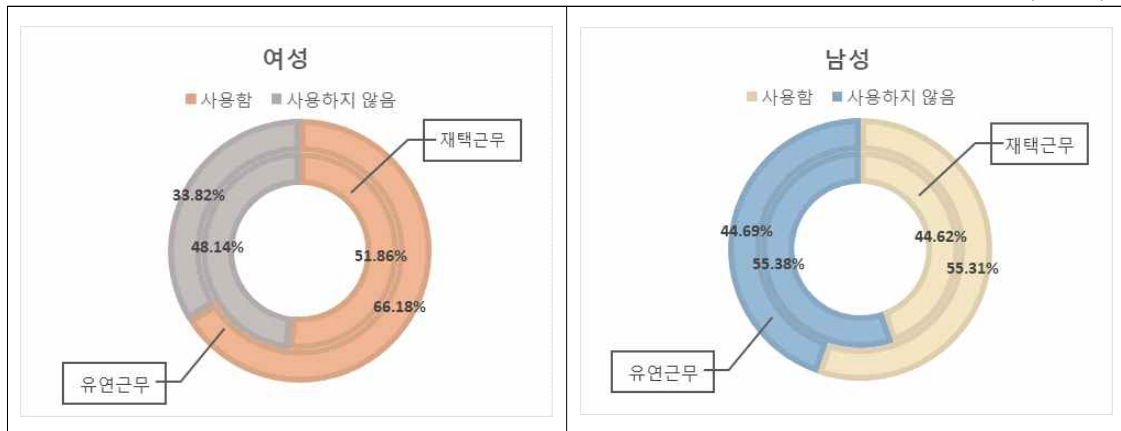
〈표 17〉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성별 사용률

(단위: %, 명)

본인 사용 여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사용함	66.18	55.31	59.80	51.86	44.62	47.60
사용하지 않음	33.82	44.69	40.20	48.14	55.38	52.40
전체(사례 수)	100.00(186)	100.00(235)	100.00(421)	100.00(186)	100.00(235)	100.00(42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2)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



[그림 11]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성별 사용률

## 2.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활용과 여성 삶의 변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덜 경험한 반면, 가사·돌봄 시간의 증가를 더 높게 인식하였음.

-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시기 시간활용 변화를 살펴보았음.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았던 여성근로자보다 취업활동에 대한 위축은 덜 경험했으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의 취업활동 변화는 평균 4.48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 4.27점보다 높았음, 반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이 각각 5.84점, 5.61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5.60점, 5.5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남성근로자 경우,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집단은 취업활동 4.49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4.69점보다 취업활동의 위축을 더 크게 경험하였음, 또한 남성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사용한 집단은 가사노동 5.11점, 돌봄 노동 5.33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5.30점, 5.40점보다 더 낮아 여성과 달리 유연근무제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돌봄 시간 증가를 더 낮게 인식하였음,
  - 여성과 남성의 상반된 결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으나 다음으로 추측됨. 여성근로자는 일·가정 양립의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 사용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돌봄부담 증가에 대처하도록 요청받는 결과로 나타났음. 반대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허용적이지 않은 직장문화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남성은 가사돌봄에 평소 좀 더 참여적인 집단으로 추측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변화를 적게 체감했으나 유연근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더 크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유연근무제가 여성에게 취업활동 안정성에 기여함에도, 유연근무가 가진 일·가정 양립의 장점은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가사돌봄 부담을 요청받게 함으로써 일·가정 이중부담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의미함.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운동/스포츠 활동, 사교활동 시간이 더 낮게 나타났음. 이는 유연근무(주로 재택근무)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가사돌봄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른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됨. 이는 남성도 동일하였음.
  - 운동, 스포츠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은 4.00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 4.23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음. 사교활동 역시 유연근무제 사용 집단은 2.46점으로 미사용 집단의 2.83점보다 더 낮았음,
  - 남성근로자 역시 유연근무를 사용했을 때 운동/스포츠는 3.35점, 사교활동은 2.25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3.81점과 3.04점보다 더 낮았음.
- 여성은 재택근무제를 사용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음. 이는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일 수 있으나, 자녀돌봄 중인 여성근로자 경우 앞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결과(그림 6)를 참고한다면 유연근무제 사용으로 자택 내 원격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돌봄·교육에 좀 더 개입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된 상황으로 해석됨.

〈표 18〉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시간활용 변화

(단위: 평균, 명)

시간활용 변화	유연근무제 사용			유연근무제 미사용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취업활동	4.48	4.49	4.48	4.27	4.69	4.54
가사노동	5.84	5.11	5.45	5.60	5.30	5.40
돌봄노동	5.61	5.33	5.46	5.58	5.40	5.46
운동, 스포츠	4.00	3.35	3.65	4.23	3.81	3.96
사회활동	2.46	2.25	2.35	2.83	3.04	2.97
디지털 기기 사용	5.85	5.67	5.75	5.66	5.86	5.79
사례 수	117	120	237	64	109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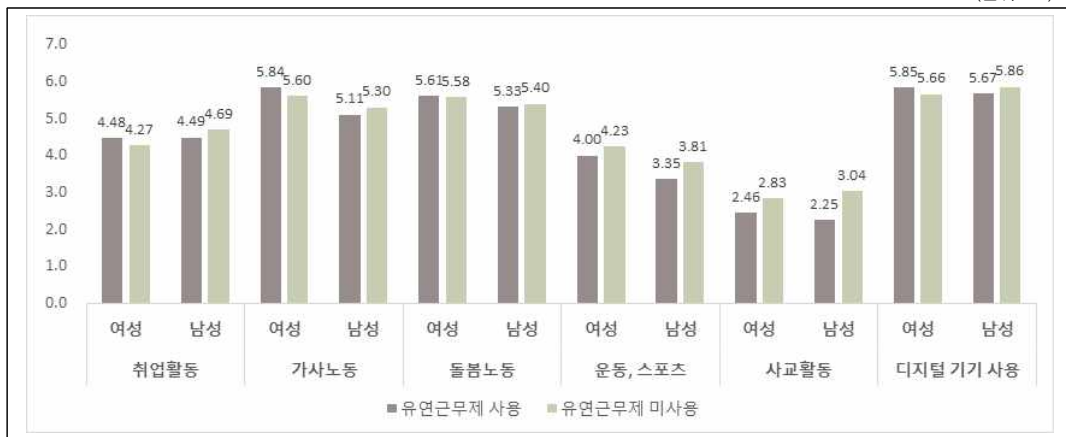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11점 척도=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 ~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10점)

2)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3)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그림 12]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시간활용 변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남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경제활동의 영향은 적게 받은 대신, 가족관계, 여가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 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영향 수준을 살펴보았음.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과 남성은 사용하지 않은 남녀보다 ‘가족관계’, ‘여가’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관계의 영향이 여성 4.95점, 남성 5.04점으로 나타나,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여성 4.90점, 남성 4.91점보다 더 높았음. 대체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유연근무 사용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다고 인지함
- 반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남녀 모두 ‘채용·구직·창업 등’에 서는 영향을 덜 받았는데, 이는 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정이나 일자리 충격을 적게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표 19〉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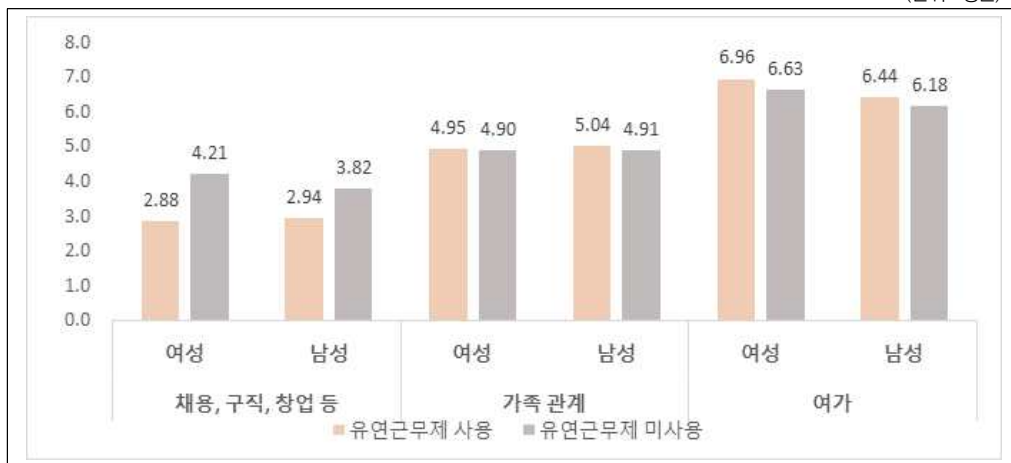
(단위: 평균, 명)

삶의 영향	유연근무제 사용			유연근무제 미사용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채용, 구직, 창업 등	2.88	2.94	2.91	4.21	3.82	3.95
가족 관계	4.95	5.04	5.00	4.90	4.91	4.90
여가	6.96	6.44	6.68	6.63	6.18	6.33
사례 수	117	120	237	64	109	17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 주 1.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0점) ~ 매우 영향을 받았다(10점)
- 2.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 3.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평균)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그림 13]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삶의 영향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더 재택근무를 생산적으로 인식하였음.**

- 재택근무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가 일반적 근무환경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음.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여성 13.18%, 남성 6.75%), 남성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음(여성 36.42%, 남성 46.27%).
  - 재택근무가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인식할 경우를 4점, 재택근무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1점으로 하여 평균화했을 경우, 여성은 평균 2.04점으로 남성의 1.84점보다 높아 재택근무를 더 생산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더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이 더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돌봄 시간의 증가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여성은 유연근무제를 증가된 돌봄 부담 속에도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해소 방안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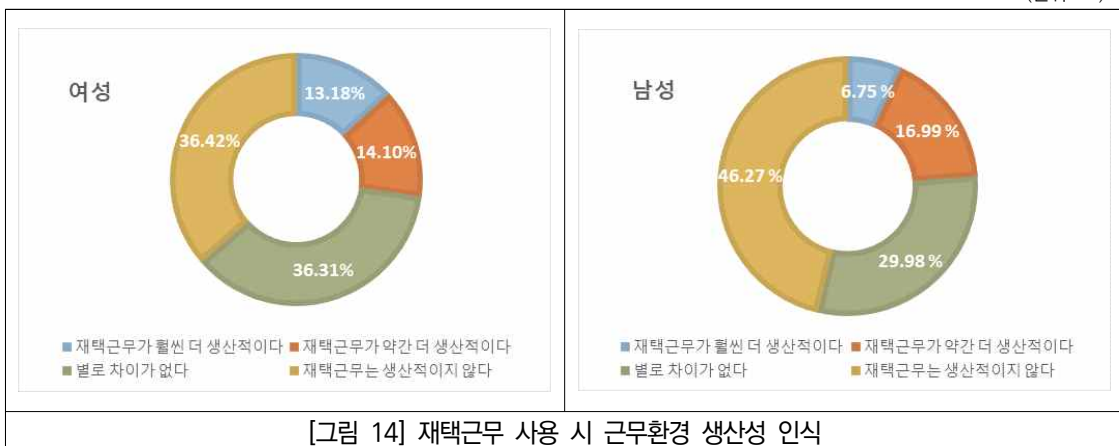
〈표 20〉 재택근무 사용 시 근무환경 생산성 인식

(단위: %, 명, 평균)

근무환경 생산성	여성	남성	전체
재택근무가 훨씬 더 생산적이다	13.18	6.75	9.64
재택근무가 약간 더 생산적이다	14.10	16.99	15.69
별로 차이가 없다	36.31	29.98	32.83
재택근무는 생산적이지 않다	36.42	46.27	41.84
전체(사례 수)	100.00(93)	100.00(95)	100.00(188)
평균	2.04	1.84	1.9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4점 척도=재택근무는 생산적이지 않다(1점) ~ 재택근무가 훨씬 더 생산적이다(4점)  
 2)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 대체로 직무 만족도, 직업 몰입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음.

-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에 따라 직무 만족도<sup>7)</sup>, 조직 몰입도<sup>8)</sup>,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sup>9)</sup>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보다 직업 몰입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음. 남성근로자는 유연근무제 사용 집단이 미사용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음.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의 직무만족도는 3.60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3.60점과 동일하였으나, 조직몰입도는 사용한 여성이 3.67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3.44점으로 더 높았고,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역시 사용한 여성이 3.62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3.40점보다 더 높았음.

7) 주된 일자리 기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의 조직 몰입도에 관한 5개 문항을 합산 평균화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동연구원 23차 노동패널(2020년) 설문지 참고.  
 8)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5개 문항을 합산 평균화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동연구원 23차 노동패널(2020년) 설문지 참고.  
 9) 주된 일자리 기준 전반적 만족도로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불만족(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됨.

- 남성근로자는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남성은 사용하지 않은 남성보다 직무 만족도(사용자 3.82점, 미사용자 3.60점), 조직 몰입도(사용자 3.72점, 미사용자 3.61점),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사용자 3.74점, 미사용자, 3.52점)가 더 높았음.
- 따라서 유연근무제 사용은 대체로 높은 일자리 만족도와 대체로 관련이 있었음. 유연근무제 사용 자체가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일자리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지 명확한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표 21〉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

(단위: 평균, 명)

일자리 만족도	유연근무제 사용			유연근무제 미사용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직무 만족도	3.60	3.82	3.76	3.60	3.60	3.60
조직 몰입도	3.67	3.72	3.70	3.44	3.61	3.55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3.62	3.74	3.69	3.40	3.52	3.47
사례 수	117	120	237	64	109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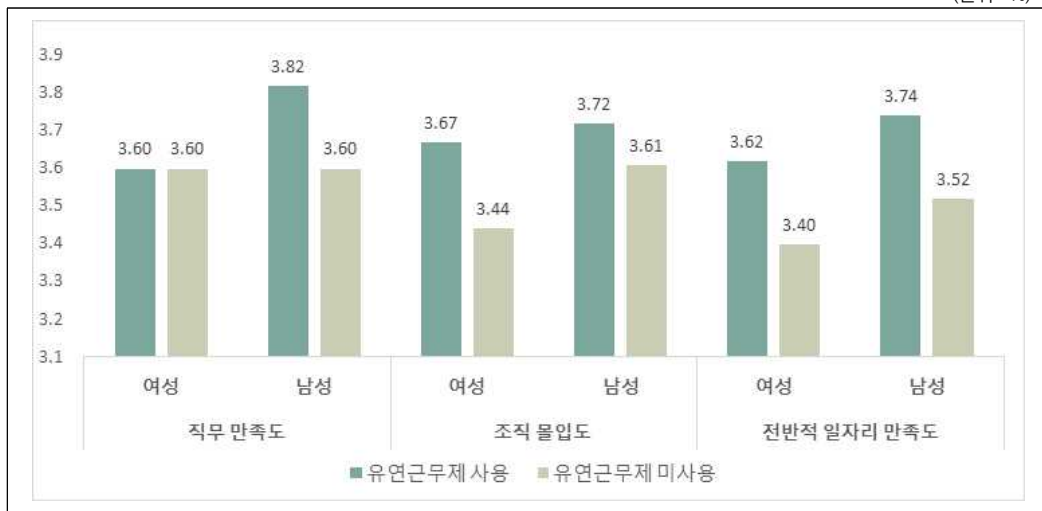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주: 1)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0점) ~ 매우 영향을 받았다(10점)

2)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중 한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3)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원자료 분석.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 적용

[그림 15]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

## V.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시기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위축을 더 경험하였으며,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 중일 때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이러한 돌봄 부담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 주된 양육방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평상시 남녀근로자에게 자녀의 주된 돌봄제공자는 ‘돌봄·교육시설’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는 ‘본인’,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책임이 주로 여성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돌봄 시간 증가를 더 높게 인식하였고, 특히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을 때 높게 나타남.
-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의 위축과 채용·구직·창업 등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경험하였음.
-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어려움이 두드러졌음.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기존 미취학 자녀 중심의 돌봄으로부터 초등돌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양육자의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가구에서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자녀가 돌봄 제공자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초등돌봄 공백 문제가 두드러졌음.
  -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는 미혼 여성근로자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학교 폐쇄 및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른 여성들의 자녀교육 개입이 증가된 상황으로 해석됨.
  - 초등학교 연령 자녀는 생애과정 상 돌봄 중심의 미취학 자녀와 교육 중심의 중·고등학교 자녀와 달리, 양육자의 돌봄과 교육의 병행 지원을 위한 집중적 개입이 요구되는 시기임.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이와 같은 초등돌봄 양육자의 돌봄과 교육의 통합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함.

코로나19 시기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근로자보다 가사·돌봄 부담은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위축은 낮게 경험하였으며,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유연근무제를 더 생산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2020년 3월 기준 직장 내 유연근무제가 있는 근로자는 약 5.5%에 그쳤고,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 도입된 경우가 약 4%로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점이 확인되었음. 코로나19 초기에는 유연근무제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업무환경이 보편화되었던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추가분석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유연근무제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이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부담 증가 및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가사돌봄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위축은 덜 경험하였음. 이는 유연근무제 사용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돌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임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유연근무 환경이 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책임을 강화하면서 기존 성별분리 관행을 지속시킬 우려를 제기함. 따라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남녀근로자의 성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적 있는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재택근무가 일반적 근무환경과 비교했을 때 더 생산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 유연근무제의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사용 경험이 없는 근로자보다 남녀 모두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는 곧 돌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가족 다양성 및 노동시장 변화를 적극 포용하고, 일·생활 균형의 다원화된 욕구가 성평등한 관계 속에 구축될 수 있도록 돌봄지원체계 다양성 증진과 유연근무 환경 개선이 탄력적 위기 대응에 필요함.

-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 안전망이 단절되면서, 기존 돌봄지원체계가 가진 경직성이 곧 돌봄 위기 문제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돌봄위기는 곧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위기로 드러남.
  - 코로나19 위기 동안 사회적 돌봄체계 붕괴는 곧 여성근로자의 돌봄 부담 증가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음.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낮은 유연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돌봄지원제도가 간헐적·비상시적인 돌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율하는 '일·가정 양립'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사회적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성평등 돌봄사회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가족생활 및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용하여, 돌봄지원 제도가 다원화된 일·생활 균형 또는 일·가정 양립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맞벌이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비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역시 비정형노동이 증가하면서 근로형태와 근로방식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다원화된 일·생활 방식의 정채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돌봄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 측면에서는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유연한 돌봄 제공 역할을 공적 돌봄지원체계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돌봄·교육의 통합적 지원 등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 지원 측면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이 성평등한 근로 환경에서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 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구슬이, 정익중. (202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 여성연구, 108(1), 281-308.
- 노컷뉴스. (2020.09.17.). '급식 대신 라면 끓이다 참변' 인천 초등생 형제...사흘째 중태. 주영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413969> (2022.11.28. 접속).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정책소개.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do> (2022.11.28. 접속).
- 방진아, 허순임. (2021). 근로시간 유연화가 여성 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11(4), 37-66.
- 이성희, 조선미, 장지은. (2020). 초등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아, 신경아. (2021). 여성 고용 안정화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학, 37(1), 39-73.
- 손연정. (2022).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 코로나 9 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37-5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부가조사(2020년) 설문지(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2020년) 설문지.